

머 리 말

제2분과 간사 손승철·스카와 히데노리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제2기 제2분과는 2007년 6월 23일, 도쿄에서 개최된 양국 위원에 의한 전체회의로 발족하여, 이후 본 분과에서는 편집회의도 포함하여 15회에 걸친 공동연구회를 개최하였다. 개최지와 보고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표를 참조하시길 바란다.

1. 제2분과의 구성

제2분과 양국 위원은 다음과 같다. 분과회의 발족부터 보고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위원의 교체 혹은 중도 참가는 없었다.

위원(가나다 순, 일본측은 히라가나순. 소속은 2009년 11월 현재, 이하 동일)

손승철(孫承喆,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 *한국측 제2분과 간사

이계황(李啓煌, 인하대학교 문과대학 일어일문학전공 교수)

한명기(韓明基, 명지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

구와노 에이지(桑野榮治, 구루메대학 문학부 준교수)

사에키 고지(佐伯弘次, 규슈대학대학원 인문과학연구원 교수)

스카와 히데노리(須川英徳, 요코하마국립대학 교육인간과학부 교수)

*일본측 제2분과 간사

2. 제2분과가 담당한 시대

제2분과는 중세·근세 분야를 담당하는 것으로 정했지만, 양국에서의 시대구분의 차이를 고려하여, 한국사에서는 고려·조선시대(개항 이전)을, 일본사에서는 헤이안 시대부터 에도시대(개항 이전)을 대상 시기로 했다. 대략 10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이다.

3. 연구의 기본방침과 주제

제2분과에서는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비추어, 제1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제2분과의 공동연구를 심화하고, 더욱 발전시킬 것을 전제로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동연구의 기본방침으로 하였다. 또 한국측은 한국에서의 연구 성과와 현황을, 일본측은 일본에서의 연구 성과와 현황을 주로 취급함으로써, 양국에서의 역사연구의 기본적인 입장과 관심의 차이를 드러내는 데에 노력했다.

- ① 논의와 검토 대상은 학술적인 저작물(논문, 저서)로 한다.
- ② 해당시기의 두 지역의 관계에 대해서 공동연구를 하는 것을 주안으로 하고, 그를 위한 공동연구 주제를 설정한다.
- ③ 양국 간의 학설·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해서, 양국에서의 현황과 연구사를 공동으로 조사·연구한다. 그를 위해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공동연구원(연구협력자)을 의뢰한다.
- ④ 공동조사·연구를 통하여, 학설·역사인식에 대해서 공통 이해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차이점은 차이점으로서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인식의 심화를 지향한다.
- ⑤ 연구자·교과서 집필자 등 양국의 관계자들이 연구와 역사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이용 가능한 것을 정리함으로써 교과서 문제로 제기된 갈등 해소와 한일 양국 국민 간의 상호 이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을 목표로 한다.

위의 ②, ④의 방침에 따라 쌍방의 승인을 거쳐, 각 위원이 담당하는 연구주제를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 제1주제 : 14~15세기 동아시아 해역세계와 한일관계 - 왜구의 구성문제를 포함하여 -
담당자 : 손승철 위원, 사에키 고지 위원
- 제2주제 : 동아시아 세계와 임진왜란(文祿·慶長の役) - 국제관계와 원인문제를 포함하여 -
담당자 : 이계황 위원, 구와노 에이지 위원
- 제3주제 : 17~18세기 동아시아 세계와 한일관계-통신사와 왜관의 의미를 포함하여-
담당자 : 한명기 위원, 스카와 히데노리 위원

위의 ③, ④의 방침에 따라 쌍방의 승인을 거쳐, 아래의 학설사 정리를 각 공동연구원(연구협력자)에게 의뢰했다.

공동연구원(한국측)

김보한(金普漢, 단국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한국에서의 왜구 연구의 학설사적 검토>

노영구(盧永九,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부교수)

<한국에서의 임진왜란 연구의 학설사적 검토>

이재범(李在範, 경기대학교 인문대학사학과 부교수)

<한국에서의 고려시대 한일관계사의 학설사적 검토>

한문중(韓文鐘,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부교수)

<한국에서의 조선전기 한일관계사연구의 학설사적 검토>

연구협력자(일본측)

모리히라 마사히코(森平雅彦, 규슈대학대학원 인문과학연구원 준교수)

<일본에서의 고려시대 일한관계사 연구의 학설사적 검토>

나카다 미노루(中田稔, 가나가와현립 지가사키고등학교 교사)

<일본에서의 왜구연구의 학설사적 검토>

아라키 가즈노리(荒木和憲, 문화청 문화재부 미술학예과 문부과학기관(技官))

4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2권

* 연구협력 시에는 일본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

<일본에서의 16세기대 일한관계사의 학설사적 검토>

나카노 히토시(中野等, 규슈대학대학원 비교사회문화연구원 교수)

<일본에서의 문록·경장의 역 연구의 학설사적 검토>

야마구치 가요(山口華代, 나가사키현립 쓰시마역사민속자료관 학예원)

<일본에서의 왜관·조선통신사연구의 학설사적 검토>

4. 사료해제집의 작성

위의 연구방침 ⑤에 따라 양국에 존재하는 한일관계사의 기본 자료에 대하여 사료해제집을 작성하였다.

한국측

<한일관계 사료해제집(중·근세)>(손승철·김강일(강원대학교 고문서센터 연구원))

<임진왜란 관련 사료해제집>(이상훈, 해군사관학교박물관)

일본측

<중세·근세 일한관계 사료해제집>(須川英徳·佐伯弘次·桑野榮治)

5. 보고서의 구성 및 내용

제1부에서는 제1기의 연구주제를 심화하고, 현재의 한일 양국에서 학설·해석의 차가 있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하여 양국의 기본적인 역사에 대한 관심 양상의 차이에 유의하면서, 각 관점의 차이와 공통점을 밝혀내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각 주제에 대한 양국 위원의 견해를 좌담회 형식으로 토론하고, 그 내용을 전부 수록했다. 이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주제: 〈14~15세기 동아시아 해역 세계와 한일관계-왜구의 구성문제를 포함하여-〉

- 손승철 위원 : 14~15세기 동아시아 해역세계의 상황을 《삼강행실도》의 왜구 관련 삽화와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1382년과 83년도에 강원도 영월에서의 ‘가왜(假倭) 사건’과 1470년, 80년대 남해에서의 ‘수적(水賊)사건’의 기사를 분석하여 ‘왜구=고려·조선인설, 제주도해민설’의 부당함을 논했다.
- 사에키 위원 : 동아시아 해역세계라는 공간적 확장 속에서 일본, 중국(원·명), 한반도(고려·조선) 3자의 관계로부터 어떻게 왜구가 발생하고 종식되어 갔는가를 논하고, 한일관계는 동아시아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류큐(琉球) 등을 사이에 두고 동남아시아로도 이어지는 관계였다고 서술하였다.

제2주제: 〈동아시아 세계와 임진왜란-국제관계와 원인문제를 포함하여-〉

- 이계황 위원 : <한국과 일본학계의 임진왜란 원인론>에 대한 주제로, 한국학계의 견해는 일본의 연구를 받아들이면서도, 도요토미 정권 내부의 모순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과 히데요시 개인의 성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누어서 분석했다. 반면, 일본학계의 임진왜란 원인에 대한 견해는 패전 전에는 대부분이 히데요시 영웅관에 입각하여, 모두 ‘조선불복속론’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패전 후의 여러 설들의 특징은 히데요시 정권의 모순과 특질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어, 내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임진왜란을 일으켰다고 분석했다.
- 구와노 위원 : 15~16세기의 동아시아 각국의 관계를 명과 조선, 명과 류큐, 명과 일본으로 나누어서 외교의례 면에서 비교·고찰하고, 똑같이 명의 책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실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문록·경장의 역의 담당자라고도 할 조선국왕 선조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사이에는 국왕 책봉과 대명의례(對明儀禮)가 의미하는 것은 크게 달랐다는 것을 밝혀냈다.

6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2권

제3주제 : 〈17~18세기 동아시아 세계와 한일관계-통신사와 왜관의 의미를 포함하여-〉

- 한명기 위원 : 특히 왜관문제와 관련한 대일인식을 중심으로 다루고, 17-18세기 한일관계에서 왜관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조선의 대일정책과 인식에 대해서 고찰했다. 조선은 임진왜란 직후의 곤란한 시대상황에 떠밀려 본의 아니게 왜관의 재건을 허용했지만, 이후 ‘왜관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명·청과의 외교관계와 연동하여 왜관문제를 처리하고, 일본과의 우호를 유지하면서도 국가의 위엄과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고뇌에 찬 모색을 거듭했다고 설명했다.
- 스카와 위원 : 17~18세기 동아시아 세계에서의 다국 간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종래에는 중국에 의한 질서 설정이 중심축이었던 것이, 16세기 이후의 해역 세계의 급속한 유통화, 그리고 또 하나의 축으로서 일본의 비중 증대, 전란, 왕조교체를 거치고 나서의 ‘쇄국’, 제한 무역에 따른 새로운 질서화로 변모한 국제관계 속에서의 한일 관계를 고찰했다.

한편, 좌담회에서는 발표된 주제 논문에 대한 합동토론회를 갖고, 그 녹취록의 전문을 수록했다. 좌담회를 통해서 얻은 몇 가지 성과를 소개하면, 우선 쟁점이 되고 있는 왜구 구성에 관해서 한일 양국이 일치된 견해를 제시했다. 즉 “14세기~15세기 왜구의 중요한 구성원은 이키(壹岐), 쓰시마(對馬), 마쓰우라(松浦) 지방의 해민(海民)이라는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 물론 고려·조선의 해민들이 가장하여 왜구가 되는 형태도 있었지만, 그것이 왜구의 주류는 아니라는 것을 사료상 말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리고 임진왜란 원인에 관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깊이 다루었고, 왜관과 통신사 연구도 동아시아 전체의 틀 속에서 조명해야 하고, 한일관계사를 보는 시각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이라는 데에도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예를 들면, 책봉체제에 대해서도 당시의 한일 쌍방의 인식이 크게 달랐던 것이 밝혀지고, 왜관과 통신사를 보는 데에 있어서도 거시적이면서 동시에 미시적인 관점이 모두 동원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러한 제안은 앞으로 많은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연구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2부에서 연구사는 고려시대 한일관계, 왜구, 조선전기 한일관계, 임진왜란을 주제로 이미 발표된 연구성과물(논저 및 각종 보고서)를 대상으로 학설사적 관점에서 연구사를

정리하고,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하였다. 특히 연구사 정리를 통해서 제1기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고려시대 한일관계’, ‘왜구의 주체 및 구성원’에 대한 연구성과를 추가하고, 임진왜란 연구에 대한 한국측 연구성과를 소개했다. 또 일본측에서는 일본에서의 왜관·통신사 연구의 현황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제3부에서는 <중근세 한일관계사료해제집>을 수록했다. 한국측에서는 손승철·김강일 편으로 조선시대 한일관계 사료 73종을, I. 기년 및 편년사서, II. 등록류(謄錄類), III. 실학자 문집류, IV. 외교자료집, V. 일본사행록(日本使行錄), VI. 포로·표류 기록, VII. 문집류, VIII. 기타 사료집 등으로 분류하여 <조선시대 한일관계 사료해제집>을 작성하고, 이상훈 편으로 임진왜란관련 사료 54종을 I. 관찬사료, II. 친필필사본류(親筆筆寫本類), III. 야담야사류, IV. 문집류, V. 실기류(實記類), VI. 문집 속의 일기류 등으로 분류하여 <임진왜란 관련 사료해제집>에 수록했다. 일본측에서는 사에키 위원이 중심이 되어 작업을 진행하여, 일본에서 공간(公刊)된 한일관계사 사료에 대해서 목록·해제를 작성했다.

앞으로 한일관계사 연구에 관심을 가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공동연구를 함에 있어, 제2분과에서는 상호 이해하고, 신뢰하고, 존중하면서 내실 있는 연구를 진행시킬 수 있었다. 그것은 공동연구에 있어서 자신들의 견해만이 옳고,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견해는 잘못이다, 혹은 자신들은 우월하고 상대는 열등하다고 하는 그릇된 태도로써 상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역사적 사건이나 대상을 가지고 어떠한 이해와 관점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차이는 무엇에서 유래하는 것인지를 같은 역사학도로서 스스로의 역사이해와 역사인식, 그리고 역사연구의 본연의 모습을 역사학적 고찰의 대상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역사학의 시선은 과거에만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스스로에 대해서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감히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제2분과의 활동을 사무국으로서 뒷받침해 준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정진아(丁珍娥), 신유원(申裕媛) 씨, 일한문화교류기금의 아이 사키코(相沙希子) 씨에게 양국 위원 일동 모두 감사드린다.